非攻擊的인 유모어의 問題

金 聖 泰
高麗大學校 心理學科

I.

여러가지 形式의 유모어(humor)가 있지만 才徵를 誇示하는 것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는 비웃는 것 보다는, 당장의 緊張을 超脫케 하면서 奧妙한 理致를 즐거이 생각하게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愛嬌를 느끼게 하는 것이 尊重되는 유모어인 것 같다. 아내의 심한 악담을 듣다 못해 문을 열고 나오다 다시금 바께쓰물의 洗禮를 받고 흠뻑 젖은 Socrates는 혼자말로 "천둥이 치더니 쏘나기가 오는구먼"하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나 獄에서 나온 月南을 보고 "선생님 고생이 많으셨읍니다"하고 어떤 青年이 인사를 하니 "자네는 지금 호강으로 지내고 있는 셈인가"라고 反問하여 植民地 桎梏下에서 獄中獄外가 다를 것이 있겠나를 생각케 한 유모어라든가 Freud가 든 例지만 月曜日 아침에 絞首臺로 끌려가는 死刑囚가 "이번 週日이 멋있게 시작되는구먼"하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는 다 이런 유모어의 例인 것 같다.

詩經에 衛武公의 德을 讚揚하여 노래했다는 淇澳章 끝에 「寬兮綽兮 猗重較兮 善戲謔兮 不爲虐兮」란 句節이 있다. 우스개소리를 잘 했어도 그것이 거칠게 남을 해치는 유모어는 아니였다는 것이다.

Maslow(1954)는 健全人格을 自己實現的 人間(self-actualized people)이라고 보고 이런 人間의 特徵의 하나로 哲學的이며 非敵對的인 유모어를 내세우고 있다. 即 "They do not consider funny what the average man considers to be funny. Thus they do not laugh at hostile humor (making people laugh by hurting someone) or superiority humor (laughing at someone else's inferiority) or authority-rebellion humor (the unfunny, smutty joke), characteristically what they consider humor is more closely allied to philosophy than to anything else."라고 特徵지우고 있다.

Allport (1961)도 成熟人格의 特質의 하나로 유모어를 내세우고 있다. 그가 뜻하는 유모어란 Meredith가 말했다고 하는 "the ability to laugh at the things one loves and still to love them"의 뜻으로 쓰고 있다. 이런 能力은 自己에 대한 正確한 知識을 갖는 作用인 洞察力과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다고 主張한다. 그는 유모어를 코믹(comic)이나 윗트(wit)와는 嚴格히 구분하고 있다. 男女老少 누구나가 다하듯 어리석은 짓 야단법석을 떠는 것 짐말 따위를 보거나 듣고 웃는 것은 코믹이라고 본다. 이러한 코믹은 意外로 相對가 急落되어 자기의 攻擊要求를 充足시키는 것이라든가 또는 抑壓當한 要求를 一時的으로 解發시켜 주는 것이라 그 밑바닥에는 大部分 攻擊要求와 性欲이 作用되고 있다고 본다. 어린이나 青年들은 이같은 코믹을 感知하여도 스스로를 웃을 줄은 모르며 知能이 低劣하고 美的價値 理論的價値를 제대로 파악할 줄 모르는 者라도 역시 코믹은 느껴도 人生의 참 모습을 보는 유모어는 缺如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要컨데 Allport는 유모어를 攻擊性이나 性欲과 깊히 관계있는 코믹이나 윗트와는 다른 것으로 보며 이것은 참된 自己를 알고 그러한 自己를 客觀化시켜서 웃을 수 있는 哲學的인 웃음이며 겉모습 뒤에 있는 참된 自己를 그 겉모습과 對比시켜서 옳게 보며 한편으로 웃어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攻擊性이 없는 유모어는 健全한 人格이나 成熟人間의 所産이며 또 참된 意味의 유모어는 이같이 攻擊的 傾向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非攻擊的인 유모어란 어떤 것인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II.

유모어의 語義는 古代로부터 多樣多義하게 變遷되어 와서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웃음을 자아내는 것의 特質 또는 그러한 作用으로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第7項에 보면 a. That quality of action, speech, or writing, which excites amusement; oddity, jocularity, facetiousness, comicality, fun. b. The faculty of perceiving what is ludicrous or amusing, or of expressing it in speech, writing or other composition; jocose imagination or treatment of a subject. 의 두 뜻이 있다. a의 뜻으로는 유모어란 즐거움이나 웃음을 돋구어 주는 活動 말 文章의 特質을 뜻하고 있고 b의 뜻으로의 유모어는 그러한 特質을 認知하는 能力과 이를 表現하는 能力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겠다. 要컨대 웃음꺼리가 되는 對象의 特質을 유모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를 認知하고 表出하는 能力을 유모어라는 말로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이 웃음을 誘發케하는 對象의 特質은 무엇이며 이런 特質을 感知하거나 表出해 내는 作用이란 어떤 것인가. 勿論 오랜 歷史와 多樣한 形式의 理論들이 있지만 Eysenck (1947)의 分類에 따르면 크게 三大別된다. 첫째는 어떤 것을 認知 또는 表示할 때 웃음이 생기느냐를 追求하여 認知內容의 特質로서 웃음의 原因을 찾으려는 認知的 理論이 그것이다. 認知內容의 不調和性 對照性 期待의 어긋남 等에서 웃음의 要因을 찾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웃음의 要因을 意欲的 側面에서 찾는 理論들로서 優越感의 充足 갈 適應된 狀態 또는 抑壓된 意欲의 充足이 웃음의 要因이라고 보는 것들이다. 그리고 셋째는 情緖的 側面에서 웃음의 要因을 보는 것으로 순수한 歡喜나 歡喜와 다른 情緖들의 聯合 또는 여러 情緖의 對比關係로 웃음의 要因을 찾는 理論들이다.

Murray (1938)의 紹介에 의하면 Sears는 우스개(joke)의 實證的 硏究에서 유모어를 두 要因으로 分析하고 있다. 即 構造要因(schematic factor)과 主題要因(thematic factor)으로 兩大別된다는 것이다. 모든 유모어에 一次的인 것이 構造要因으로서 (1) 첫째 終結로 向하는 原傾向性이 있다가 (2) 둘째 이 傾向性이 急作히 어긋나가며 (3) 셋째 첫 傾向性과는 사뭇 다른 엉뚱한 終結로 귀착되는 줄거리로서 이런 特質이 없는 우스개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같은 構造要因은 앞에서 分類한 範疇로 보면 認知的 要因을 내세우고 있는 理論이라 하겠다. 그런데 主題要因은 우스개의 必須的 要因도 아닐 뿐더러 그 變異도 多樣한 이야기의 內容 또는 줄거리에 該當하는 것으로 주로 非社會的 要求나 抑壓된 要求를 소생시켜 充足시키는 內容이라고 본다. 大體로 攻擊欲 優越感 아니면 性欲의 充足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Eysenck (1947)는 Freud의 初期理論에 따라 유모러스한 項目 事件 觀念을 包括的으로 우스개라고 보고 이 우스개는 知 情 意의 3要因이 作用되는 것의 總和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들 中 知的 要因이 주로 作用되어 나타나는 것을 코믹이라고 하며 情的 要因이 주로 作用되어 나타나는 것을 좁은 意味의 유모어라고 하였고 意志的 要因이 주로 作用되어 생기는 웃음은 윗트라고 보고 이 三大要因을 三角形의 세 頂點으로 보면 頂點은 知的 要因에 의한 코믹이며 底邊의 兩點이 유모어와 윗트로서 사뭇 짧은 底邊으로 된 二等邊 三角形($\overset{C}{\underset{H\ W}{\Delta}}$)으로 比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底邊의 兩點인 유모어와 윗트는 서로 密接한 關係에 있는 情意的 軸(orectic axis)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스개를 크게 나누어 보면 知的인 要因에 의하여 생기는 웃음과 感情과 意欲的인 要因에 의하여 생기는 웃음으로 兩大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事實 여러 實證的 硏究는 單純하면서도 익살스럽고 性的이며 攻擊的인 우스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과 複雜하면서 영리한 그러나 性的 問題 攻擊的인 것을 다루지 않은 우스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前者에 해당하는 사람은 늘 一貫的으로 情意的 우스개 (orectic jokes)를 즐기는 者라고 한다면 後者에 해당하는 사람

은 늘 一貫的으로 認知的인 우스개를 즐기는 者라고 보고 있다. 또 前者는 外向性과 相關이 높고 後者는 內向性과 相關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스개에 있어 攻擊性이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는 아마도 向性의 問題와 같이 氣質的인 差異에 依存되는 것 같으며 또 非攻擊的인 유모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知的 要因에 의한 유모어가 많다는 것이 되고 情意的 充足보다는 思慮的 自覺으로 微笑를 즐기는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III.

Flugel(1954)은 優越感과 攻擊性을 나타내는 유모어가 社會的 發達過程에서 漸次 洗鍊되어 간다는 意見에 많은 學者가 一致되고 있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이를 웃음의 人間化(humanization of laughter)라고 命名하고 있다. 原始人은 他人의 身體的인 畸形이나 疾患을 보고 웃었겠지만 오늘날의 敎養人은 心理的인 要因인 것이라도 사람됨의 粗雜性이나 不運한 일을 當하는 것을 보고는 웃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나 抑壓된 要求를 解發시켜주는 어떤 겸말을 無意識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는 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人間化의 過程을 通해서 이때까지의 攻擊의 相對를 오히려 同情하고 이와 共同으로 第三者를 攻擊하는 方向으로 웃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攻擊的인 유모어도 그것이 報復으로 나타낼 때는 어느정도 正當性을 인정받게 되어 자주 나타내며 웃음의 對象이 非人間的인 힘에 의한 不幸이라도 그것을 웃는데 報復의 妥當性이 인정될 때에는 역시 正當視된다는 것이다. 要컨데 유모어의 表出도 社會化되어 社會가 正當하다고 보아주는 方式과 對象에 대해서만 웃게 되어가니 攻擊的인 유모어도 人間化過程을 通해 正當視되는 非攻擊的인 유모어의 形式으로 變遷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Freud (1928)는 그의 初期理論에서 더 發展시켜 유모어를 더욱 特殊化시켜 說明하였다. 그는 유모어를 自我(ego)가 超自我(super-ego)의 觀點을 取하여 보다 高次的인 次元에 서서 自我가 스스로의 不安이나 난처한 상태를 超克하여 내려다 보며 웃음으로서 感情의 消耗를 節約하는 것이라 主張한다. 다시 말해서 自我가 超自我의 觀點에 서서 狀況의 眞摯性을 무시하고 現實을 拒絶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의 拒絶은 品位있고 向上的인 그 무엇(something fine and elevating)을 지니게 하는데 코믹이나 윗트에서는 이런 面을 찾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유모어를 할 때의 超自我의 自我에 대한 關係는 마치 仁慈스러운 어른이 사소한 일로 애태우는 어린이에게 "이것봐, 外觀上 위험 천만의 이 세상도 따지고 보면 웃어버릴 수 있는 어린이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라고 말하여 超越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Hall과 Lindzey (1957)가 지적했드시 Freud의 超自我는 人格에서 道德을 대표하는 팔로서 이는 現實的인 것 보다는 理想的인 것을 追求케 하며 快보다는 完璧性을 위해 努力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一時的이나마 自我가 超自我의 立場에 서서 道德的 規準理想的 立場에서 自我가 스스로를 客觀視하며 그러면서도 理想的 方向으로 努力하는 姿勢를 갖게 하는 것이 유모어이니 유모어 自體가 社會化를 實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웃음이 人間化되고 社會化되어 生物學的要求의 充足 그대로라기보다 넓은 觀點에서 現實의 不安을 거절하고 喜悅을 느끼게 하며 超越과 克服으로서 洗鍊된 方式으로 웃음을 즐기면서도 自己를 人間化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가지 유모어 속에서도 特히 이 非攻擊的인 유모어의 참모습이 아닌가 한다.

IV.

非攻擊的인 유모어를 考察하기 위해서는 攻擊의 問題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찌기 Dollard 등(1939)은 攻擊을 定義짓기를 生物體에 傷害를 주는 것이 目標反應으로 되어 있는 活動(as an act whose goal response is injury to an organism)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目標反應이란 어떤 行動系列을 終結지어주는 活動으로서 더 以上 그 行動系列을 이끌어 갈 힘이 없을 정도로 行動의 誘發力을 減縮시키는 反應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目標反應은 어떤 行動系列을 終結

지어주고 이런 方向으로 유도케한 行動들을 強化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目標反應으로 이끌어준 行動系列은 學習이 形成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때 攻擊이란 過去에 對人傷害를 해서 그것으로서 어떤 強化를 받었던 經驗이 있어 그 對人傷害가 目標反應으로 되어 있는 行動系列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런 攻擊에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으로는 欲求不滿(frustration)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目標反應이 妨害를 받을 때 나타나는 條件인 이 欲求不滿에서는 언제나 攻擊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目標反應이 있어 이를 遂行하려고 어떤 行動系列이 進行되는데 이것이 妨害를 받어 그 目標反應을 못이룩하게 되었다. 이때 欲求不滿이 생기고 이에 따라 어떤 事物이나 人物에 傷害가 志向된 行動系列이 나타난다. 이것이 攻擊인 것이다. 勿論 傷害란 身體的 傷害에서부터 他人行動의 妨害 他人에 대한 侮辱 冷待도 생각할 수 있고 轉換되어 無生物의 破損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制止된 形式으로는 노여워하는 感情 敵慨心 興奮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이들의 欲求不滿·攻擊假說의 立場에서 非攻擊的인 유모어를 생각할 때 攻擊을 유발시킬 정도로 昂揚된 欲求不滿의 經驗이 없었거나 또 있다해도 이를 能히 克服하여 欲求不滿과 攻擊의 連結이 習性化되지 않은 狀態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欲求不滿을 많이 經驗하지 못해서 攻擊行動의 必要가 없으니 攻擊的이 아닌 다른 要求에 의한 유모어만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Feshbach (1971)는 記述的立場에서는 攻擊을 Dollard 등의 생각에 따랐었지만 構成槪念의 水準에서는 攻擊을 意圖的인 것과 偶然的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意圖的인 것을 다시 非攻擊的目標의 成就를 위해 나타내는 方便的 攻擊과 目標反應이 직접 傷害로 되어 있는 攻擊趨動에 의한 攻擊으로 나누었다. 물론 根本的 意味에서의 攻擊은 이 攻擊趨動에 따른 攻擊行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攻擊趨動을 先天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때까지의 대부분의 意見이지만 動物의 種族內攻擊을 보면 同種끼리의 殺傷이 人間에서와 같이 심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攻擊趨動의 先天性을 妥當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主張한다.

또 攻擊趨動에 의한 攻擊과 노여움과도 嚴格히 區別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노여움은 自律神經反應이며 運動的인 反應으로 그 樣相에 있어 攻擊傾向이 있기는 하지만 傷害를 加하려는 攻擊趨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여움은 自律神經的 變化와 激化된 運動反應이 特徵이며 生物學的인 適應機能으로 보아서도 남에게 警戒信號를 주는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여움은 相對에 傷害를 주기보다는 그저 打擊만으로 示威를 하는 데 그 本質이 있다는 것이다.

그 觀點에서 볼때 攻擊趨動의 先天性도 노여움의 發露로서의 攻擊行動도 再檢討가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攻擊的인 유모어가 先天的傾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非攻擊的인 유모어가 攻擊的인 유모어의 變裝이라기보다 보다 自然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暗示를 주는 理論이라는 點에 關心이 끌린다.

앞서 유모어의 表出도 社會化되어 社會가 正當하다고 보아주는 方式과 對象으로 나타내게 마련이라고 했지만 Feshbach (1971)가 지적하고 있드시 攻擊行動도 社會化되어 社會가 道德的規準에서 正當하게 보아주는 方向으로 나타날 것이다. 攻擊行動을 一般的으로는 非正當視하지만 그것이 合法的이며 個人的 動機의 充足보다는 社會的 動機의 充足에 不可避하며 그 行動表出에 個人的 責任이 적은 경우라든가 自發的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 防衛를 위해 나타난 것 情緖的 興奮 때문에 나타난 것 따위는 어느정도 正當視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攻擊的인 유모어도 이런 規準에서 相當히 正當하게 보아주는 것도 事實이다.

이렇게 볼 때 非攻擊的인 유모어가 尊重되는 人格特質로 取扱되는 것은 攻擊一般을 不當視하는 社會에서 社會가 尊重하는 方式 即 社會化되어 있는 方式으로 유모어를 즐긴다는 點에서 그 價値가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V.

健全人格의 特徵으로서 내 세워지고 있는 非攻擊的인 유모어는 自己 스스로에 관한 正確한 知識을 갖게 되는 소위 洞察力과도 높은 相關이 있고 이는 또 優秀한 知能을 지니고 있으며 審美的 價値 理論的 價値를 尊重하고 이를 理解할 수 있는 者에게서 비로소 期待할 수 있는 能力인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의 實證的 硏究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다.

웃음을 자아내는 要因을 크게 認知的 要因과 情意的 要因으로 나눈다면 非攻擊的 유모어는 前者에 의한 웃음을 즐기는 傾向이며 이 傾向은 多分히 性格的인 面이 엿보이고 그것도 內向性과 깊은 相關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傾向은 아무나 얻어질 수는 없는 習得키 어려운 높은 水準의 習性이라고 하지만 이 習性이 習得的인 것이냐 氣質的인 것이냐의 問題는 앞으로 더욱 究明해 나가야 할 課題인 것 같다.

人間이 原始的으로는 攻擊性과 性欲등의 充足을 契機로 웃던 것이 점차 社會化되고 理想的인 方向으로 人間化되어가는 過程에서 社會가 不當視하는 攻擊傾向을 廢棄 또는 抑制하고 正當視하거나 尊重하는 非攻擊的인 樣相으로 웃음이 洗鍊되어 간다는 主張도 있다. 價値 있는 知的인 內容 人生의 問題 自我의 모습 등에서 웃음의 要因을 찾아 이를 웃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解決의 方向을 模索하거나 혹은 解決을 지어가는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이같이 攻擊的인 유모어에서 非攻擊的인 유모어로의 發達은 人類史的으로나 個體發達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具體的인 硏究도 역시 앞으로의 課題인 것 같다.

參 考 文 獻

Allport, G.W.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1.

Dollard, J., Doob, L.W., Miller N.E., Mowrer O.H., & Sears R.R.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9.

Eysenck, H.J. *Dimensions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7.

Feshbach S. Dynamics and morality of violence and aggression: Some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American Psychologist*, 1971, 26, 3, 281-292.

Flugel, J.C. Humor and laughter. In Lindzey G.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Cambridge: Addison-Wesley, 1954, 2, 709-734.

Freud, S. Humor 〈First Published Imago, 14 (1928)〉 In Strachey J. (ed.) *Sigmund Freud: Collected Papers*, New York: Basic Books, 1959, 5, 215-221.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7.

Masla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54.

Murray, H.A.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1938.